

출판기념회·공직 사퇴...지역정가 총선 앞으로

출마예정자들 눈에 잘 띄는 ‘선거 명당’ 사무실 마련 주력

광역·기초의회 보좌진 비서진 등 캠프 인력 채용 경쟁 치열

내년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예정자들이 선거 캠프를 꾸리고 있다. 특히 선거를 치른 경험이 풍부한 광주시의회 일부 보좌관들이 소속 선거캠프에 합류하고, 유권자의 눈에 잘 띄는 ‘선거 명당’에 사무실을 마련하려는 출마예정자들의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최근 총선 도전자들의 출판 기념회가 잇따르고 선거 캠프 구성을 위한 물밑 작업도 치열하다. 총선 예비 후보자들은 공식 선거 캠프 개소 일(12월 17일)을 한 달가량 앞두고 선거 사무소를 구하는 데 애쓰고 있다. 선거 120일 전인 예비 후보자 등록일(12월 17

일)부터 선거 캠프를 공식적으로 열 수 있다.

후보자들은 유동 인구가 많아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을 때 눈에 잘 띄는 자리를 선호하고, 과거 유명 정치인이 당선됐던 사무실도 주요 선거사무실로 인기를 끌고 있다.

북구지역 한 출마 예정자는 “과거 많은 선배 정치인들이 선거 사무실로 사용했던 곳에 동지를 틀 예정이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선거 사무실이 마련되면 선거 캠프 구성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후보자는 비싼 임대료에도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선거사무실 가계약 등을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캠프 인력 채용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후보자마다 풍부한 선거 경험이 있는

광역·기초의회 보좌관, 비서진 등 경력자를 채용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실제, 일부 시의원 보좌관들은 올해 마지막 광주시의회 회기를 앞두고 줄줄이 사직서를 냈는데 총선 예비 후보자 캠프 합류가 점쳐지고 있다.

후보자들이 얼굴을 알리기 위해 개최하는 출판기념회도 이어지고 있다. 출판기념회는 현역 의원에게는 의정 활동과 정치철학·비전 홍보의 장이며, 세를 결집하고 과시할 수 있는 주요 정치 행사다. 공식 선거비용 총선 출마 예정자는 선거일 90일 전(내년 1월 16일)부터 선거일(내년 4월 15일)까지는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어 출판기념회 행렬은 올 연말과 내년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광산갑 지역위원장이 오는 10일 광산문화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동남갑 출마가 예상되는 최영호 전 남구청장은 17일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출판기념회를 한다. 또 북구갑의

김경진 의원은 오는 30일 동신고 체육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동남갑의 윤영덕 전 청와대 행정관은 다음달 8일 남구문화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총선 출마에 뜻을 둔 공직자들의 사퇴도 잇따르고 있다. 이병훈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지난달 30일 퇴임하고 동남을 민주당 경선에 뛰어들었다. 조오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통기획관도 지난달 24일 사퇴하고 민주당 북구갑 경선에 나섰다. 조 전 기획관은 최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정부특보로 임명되는 등 보복을 댈하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선거제 개혁안 국회 통과에 따른 선거구 확정 등이 남아 있지만 출마예정자들이 출판기념회 개최와 조직강화에 나서는 등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고 있다”면서 “예비 후보자 등록일을 전후해서 더욱 많은 출판기념회가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 ‘대한민국 자치발전’ 광역부문 대상

김영록(사진) 전남지사가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관하는 2019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했다.

민선 7기 핵심 기조인 ‘도민 제일주의와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이라는 목표와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다양한 정책과 프로젝트를 내놓은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서울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시상식에서 광역부문 최고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은 지방자치 실시 24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을 선정 표창하는 것으로 국경, 광역, 기초, 공무원, 사회단체, 총 5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했다.

김 지사는 도민이 체감하는 행복시책으로 마을로·내일로 프로젝트 지원, 청년구직활동 수당 신설,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확대 등 청년 일자리부터 주거까지 시책을 펼쳤다. 또 노인일자리, 장애인 일자



리,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등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의 행복 복지안전망 구축과,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초·중·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전국 최초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등 여성과 아동·청소년 분야의 시책도 돋보였다.

소상공인 창업·경영안정자금 확대, 제로페이-전남 시행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시책과 전국 최초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안정 사업비 확보, 농업인 월급제 신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등 농어업인 생활 안정 분야에서도 다른 시도와 차별화한 시책을 선보였다.

김 지사는 민선 7기 출범 15개월째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서 줄곧 1위를 달리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6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전남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계속 받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즐거워하는 자원봉사자들

지난 2일 광주시 북구 문흥동 문화 근린공원 운동장에서 열린 2019 북구자원봉사 한마당행사에서 봉사자들이 체육행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 마을분쟁 해결센터 내년 5개 자치구 확대

2015년 전국 첫 남구 시범...충간소음 등 1142건 조정 성사율 85%

광주시는 남구에서 시범 운영중인 광주 마을분쟁 해결센터를 내년부터 광주지역 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마을분쟁 해결센터는 마을에서 생기는 분쟁과 갈등을 공동체에서 해결해 법적 소송 등 문제 확대를 막자는 취지로 2015년 9월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됐다. 광주시와 남구, 광주지법, 지역 법률전

문가 단체 등이 참여했다. 센터는 개소 후 올해 7월까지 충간소음, 흡연, 생활 누수, 주차 문제 등 1142건의 분쟁을 조정해 화해 성사율은 85%에 해당하는 973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충북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벤치마킹하고 있다.

광주시의 이번 자치구 확대 운영은 그

동안의 성과와 마을분쟁 상담 및 해결 경험들을 바탕으로 주민 주도 마을분쟁해결 시스템을 모델화해 전국화하고, 사업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분쟁 해결센터 설치 근거를 자치법규에 명시해 더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 지난 1일 공포했다.

또한, 이번 분쟁해결센터 운영 확대를 계기로 주민 주도의 분쟁해결시스템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5개 자치구별로 거점화

하기로 했다. 특히 주민화해지원인 양성 과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해 앞으로 마을별 로 발생되는 작은 생활분쟁 등을 분석해 유형별로 해결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학교폭력 문제를 마을자치와 함께 해결하는 ‘청소년 화해 놀이터’와 아파트 생활 갈등을 해결하는 ‘화해 아파트’ 등 분쟁 조정 프로그램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준영 광주시 자치행정국장은 “주민 주도 분쟁 해결시스템 확대로 공동체 정신을 회복해 전국적인 선도모델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최권원 기자 cki@kwangju.co.kr

불법어업 꼼짝 마!

전남도·시군 11월 지도단속

전남도는 11월 한 달 동안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26~29일에는 시·군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

전남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번 합동단속에는 16개 시·군이 함께 참여해 어업지도선 18척과 어업감독 공무원 등 60여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조업 금지구역, 불법 어구 사용, 다른 시도 선박의 전 남지역 해상 경계 위반 조업행위 등 어업기

조질서 위반 행위 등이다. 또 항로를 침범하고 고잉생산을 조장하는 무면허 양식 시설, 유해약품 사용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자라는 계절로 강력한 자원 관리가 필요하다”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의 자율적인 준법조업질서가 정착되도록 홍보 및 계도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수산자원 남획을 조장하는 싸늘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혁신적인 AI 아이디어 공모 합니다”

광주시 경진대회 개최

5일~다음달 4일까지 접수

광주시가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광주시는 ‘2019 인공지능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5일부터 12월 4일까지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와 아이디어 제안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

면 된다.

제안서는 우편(광주시 남구 송암로 60 AI 중심도시 광주 만들기 추진위원회), 방문, 이메일(kjh06031@naver.com)로 접수한다.

공모 분야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 인공지능 활용 공공서비스 개선, 생활문제 해결 등이다.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로 나눠 대상 1명(200만원), 최우수상 3명, 우수상 6명, 노력상 10명 등 모두 20명을 시상한다.

/최권원 기자 cki@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